

광주상의, 지역 가전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전내일청년 특화 지원사업’ 추진
인력난 해소·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채용장려금·안전워크업·시설 개선
“청년들 장기 재직·지역 정착 유도”

광주상공회의소가 올해부터 지역 가전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전내일청년 특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22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지원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의 핵심산업인 가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가전산업 관련 제조기업과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사업은 크게 ‘기업지원’과 ‘청년지원’ 두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기업지원 분야는 청년 신규채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용장려금’, 청년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워크업 사업’, 휴게

시설 등 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선 사업’으로 구성된다.

청년지원 분야는 신규 입사자의 초기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안착지원금’과 가전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장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채용장려금의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안전워크업 사업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동이용시설 개선 사업은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청년 대상 지원사업인 안착지원금의 경우,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및 6개월 이상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성장지원금은 2년이상 3년 이하 재직한 청년이 2개월 및 5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가전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고용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일자리플랫폼(www.gjobgo.com) 또는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062-350-5893/5)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콘텐츠 IP 공모

웹툰·영상·캐릭터·애니메이션
상금 700만원…후속 지원혜택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라남도 다양한 콘텐츠 IP와 우수 창작자 발굴을 위해 ‘2025년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IP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보다 공모 분야를 확대한 △웹툰 △영상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총 4개 장르로 구성돼 지원자들이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 대상은 전남지역 거주자, 전남 소재 대학 재·휴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전라남도 관련 주제에 제한이 없으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작품, 타 공모전 수상한 작품과 이전에 제작 지원을 받은 콘텐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1일부터 6월20일

오후 5시까지로, 진흥원 누리집 또는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콘텐츠 출품작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sun@jci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완성도, 대중성, 주제 적합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상금은 총 700만원 규모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장과 함께 △대상(1명, 250만원) △최우수상(2명, 150만원) △우수상(3명, 50만원) 상금이 수여되고, 향후 진흥원의 콘텐츠 사업에서도 혜택이 주어질 계획이다.

사업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발표, 수상자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사업담당자(061-755-9525)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오지현 기자



롯데백 광주점, 캠핑 아이템 선택

롯데백화점 광주점 6층 스노우피크 매장에서는 본격적인 캠핑 계절을 맞아 다양한 캠핑 아이템을 선보인다. 해당 매장에서는 카카오프렌즈,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와 콜라보레이션한 다양한 캠핑 아이템을 제안한다. 대표적으로 캠핑 의류를 비롯해 피크닉백, 키링, 양말 등 일상 생활에서도 코디 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10만원 이상 구매 시 ‘럭키 드로우 행사’를 통해 스노우피크 세트, 상품 교환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5월 6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정충, 북구지역 AI·반도체 기업 신규 채용 지원

10개 기업 선정…최대 5명 1천만원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북구지역 인공지능(AI)·반도체, 전자산업 등을 대상으로 ‘내일이 행복한 AI·반도체 기반 일자리 잡고(Job Go)’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2일 광주정충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북구 소재 AI·반도체 대상기업의 근로자 근속 지원 및 맞춤형 인재발굴을 통한 취업 연계 및 지역 인력난 해소 등 고용안정 지원과 재직자 근속유지 등 장기근속을 도

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AI·반도체, 전자산업 등 관련 기반기업 중 신규인력채용(예정)기업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채용조건 및 지원사항은 청년층 만 39세까지 정규직 채용조건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시 생산제품 재료비,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홍보 동영상 중 택일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문화행사와 맞춤형 인사노무 컨설팅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지원수준은 10개 기업으로 신규채용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명까지 1000만원 이내다.

평가방법은 사전검토와 사업수행 적합 여부 서류심사에서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하고사업참여기업은 ‘신규인력채용확인서’ 접수 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는 광주정충 홈페이지(www.gjef.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일자리사업부(062-654-3427)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기아, 상품성 강화 ‘The 2025 봉고 III EV’ 출시

기아가 상품 경쟁력을 높인 대표 소형 트럭 ‘The 2025 봉고 III EV’를 2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The 2025 봉고 III EV는 기존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급속 충전시간 단축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향상 △배터리 지상고 개선 △충전구 조명 적용 등 실용성과 편의성을 모두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기존 봉고 III EV 고객의 주요 불만족 사항으로 꼽히던 충전속도 개선을 위해 고전압 케이블 와이어링 두께를 키워 충전 전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기존 47분이 걸리던 급속충전속도를 32분까지 대폭 단축시켰다.

The 2025 봉고 III EV는 에너지 밀

도를 향상시킨 신규 60.4kWh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돼 기존 대비 6km 증가한 217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다.

또한 비포장 도로 운전 시 배터리 지상고가 낮아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지상고를 10mm 높였고, 야간 충전 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LED 조명을 충전구 상단에 추가로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The 2025 봉고 III EV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셀렉션 4325만원 △GL 4450만원 △GLS 4615만원이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실제 판매 가격은 2000만원 중 후반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소영 기자



광주상의서 ‘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 성료

유공자 표창 등 기술 발전 격려

광주광역시는 ‘제7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가 22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정보통신의 날’은 대한민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가입한 4월22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디지털사회 전환을 이끌어온 주역들을 격려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날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기념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김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정대 광주전파관리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유공자 표창패 수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 자녀 장학증서 전달, 산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과 ESG경영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지역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보통신 관련 종사자 17명에게 ‘정보통신 발전 유공 광주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지금의 정보통신 산업은 디지털 미래 사회의 강력한 동력이자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역 정보통신 산업의 소중한 가치를 기념하는 이 자리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인프라 확대로 이어져 모두가 디지털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